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인플레이션, 세계】글로벌 인플레이션 7월부터 완화 조짐

【원유, 세계】국제유가, 中 경제침체 우려에 6개월만에 최저 수치 기록

【석탄, EU·러시아】EU, 러 석탄 수입 금지 발효
→ 전 세계 석탄 시장에 큰 변화 전망

【가스, 유럽】독일 숲츠 총리, EU 에너지 안보 위해 포르투갈~스페인~프랑스 연결 가스관 구상 지지

【광물, 미국】美 광산업계,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 기차 보조금 적용 위해 공급망 재편

【물류, 독일】가뭄에 말라가는 라인강, 물류 마비 위기로 독일 및 유럽 경제에 추가 악재

【곡물, 우크라이나·글로벌】우크라이나 흑해 통한 곡물 수출 본격화, 매달 500만 톤 목표 달성 기대

【리튬, 남미】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리튬 삼각 지대'의 자원 보호주의에 전기차 업계 속앓이



GVC 뉴스 더하기

- ①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산업 공급망에 영향
- ② 日 경제안전보장법, 공급망 강화 등 기본지침 발표
- ③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발표



GVC 기초상식

방위산업과 공급망



GVC 돋보기

식량보호주의와 수출제한조치



GVC 전문가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더 찾아보기

한국 방위산업이 앞으로 가야할 길



GVC 소식통

- ① 라-우 사태,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안내
- ③ 공급망 관련 포럼 및 상담회 개최 소식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인플레이션,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 7월부터 완화 조짐

- 미국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고, 러-우 사태 이후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음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8.3%(4월) → 8.6%(5월) → 9.1%(6월)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7월 8.5%로 하락
 -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대비 4.6% 하락하였으며, 특히 휘발유 가격은 7.7% 급락
 - 최근 3개월 사이 구리(-12.5%), 철광석(-19.3%), 니켈(-14.9%), 알루미늄(-9.3%) 등 금속 가격도 하락세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7월에 전월대비 8.6% 감소하며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 기록
- 그러나, 러-우 전쟁발(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유럽은 여전히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영국 소비자물가는 4~6월 9%대 상승률을 유지 중
 - 독일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5%로 전월대비 0.1%p 감소하였으나, 유류세 인하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등 혜택이 만료되는 8월 말 이후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질 가능성 존재

출처 : 뉴시스(22.8.16)

● 【원유, 세계】 국제유가, 中 경제침체 우려에 6개월만에 최저 수치 기록

- 8.15일(월)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로 지난 2월 초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가격 기록
 - 장중 87달러 선이 무너졌으나 다시 상승해 89.41달러(전 거래일 대비 -2.9%)에 거래 마감
-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장중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3% 하락한 95.18달러 기록
- 중국 인민은행은 '22.7월 부진한 국내 생산·판매 실적'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유 시장에서 중국의 수요 침체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
 - 中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여, 블룸버그통신 전문가 전망치(4.3%) 하회
 - 中 7월 소매판매액도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쳐 로이터통신 전망치(5%)를 크게 하회
- 또한, 블룸버그통신은 이란 핵합의 재협상에서 이란산 원유가 국제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

출처 : 연합뉴스(22.8.16)

● 【석탄, EU·러시아】 EU, 러 석탄 수입 금지 발효 → 전 세계 석탄 시장에 큰 변화 전망

- EU는 8.10일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를 시작함에 따라 EU는 미국,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에서 석탄 수입을 늘리는 중
 - EU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산 석탄의 대체 공급처 발굴
 - * 미국산 석탄의 '22.6월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
 - * 콜롬비아산 석탄의 '22.6월 수입량은 120만 톤으로, '21.6월 28만 7,000톤에서 큰 폭으로 증가
 - * 호주산 석탄의 '22.6월 수입량은 11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 EU 집행위는 석탄 수입금지 결정으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의 80%(연간 매출로 환산 시 80억 유로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석탄 수입에 박차를 가하여, 지난 6월 중국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은 전월인 5월 501만 톤 대비 100만 톤 증가한 612만 톤, 인도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은 203만 톤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

출처 : 뉴시스(22.8.11), 아시아타임즈(22.8.10) 등

● **【가스, 유럽】 독일 솔츠 총리, EU 에너지 안보 개선 위해 포르투갈~스페인~프랑스 연결 가스관 구상 지지**

-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가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유럽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프랑스를 거쳐 유럽 중앙까지 새 가스관을 연결하는 구상을 지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8.11일 보도
- 솔츠 총리는 이날 첫 하계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상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며 '이 구상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
 - 해당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년 프랑스의 반대로 보류되었던 동부 피레네를 가로지르는 가스관 건설 계획 재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짐
 - EU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체 가스관 부족을 해결 과제로 여기며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나, 독일이 당장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번 구상이 단기간 내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 제기
- 러시아가 독일을 잇는 '노르드스트림1'의 가스공급을 감축한 이후 독일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와 함께 올겨울 난방비 급증에 대비하고자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계획까지 내놓고 있음
 - 솔츠 독일 총리는 현재 건설 중인 북해 연안의 LNG 수입 터미널이 내년 초 가동되면 가스공급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출처 : FT(22.8.11), 뉴시스(22.8.12) 등 언론보도 종합

● **【광물, 미국】 美 광산업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받기 위해 공급망 재편**

- 중국 등 외국산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를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美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 (8.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업체들은 ▲2023년까지 리튬 등 배터리 소재의 40% 이상, ▲2026년까지 80% 이상을 미국 또는 캐나다·칠레·호주 등 FTA 체결 국가에서 조달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 10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조건과 일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배터리 정보업체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BMI)의 사이먼 무어스 대표는 배터리 광물 광산과 제련공장 건설에 7년, 배터리 공장 건설에 2년이 필요하다고 언급
 - 리튬 생산업체 앨버말의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미국 내 투자 유치에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관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현재 미국 내 여러 광산개발 사업들은 지역사회와 환경운동 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FTA 체결국에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 칠레 광물업체 안토파가스타의 미네소타주 구리·니켈 광산 개발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좌절
 - 피치솔루션의 원자재 애널리스트 닉 트리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호주 등지로 투자를 심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

출처 : 연합뉴스(22.8.12)

● **【물류, 독일】 가뭄에 말라가는 라인강, 물류 마비 위기로 독일 및 유럽 경제에 추가 악재**

- 독일의 주요 물류 채널인 라인강이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일부지역 수위가 30cm를 기록, 수운 물류가 마비 위기에 처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더하여 또 다른 걱정거리로 부상하며 독일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일부 선박은 좌초 우려 때문에 30~40%만 적재하거나 운송을 전면 중단, 이에 따라 운송 비용이 오르며 6월 대비 화학물질 수송 바지선의 운임은 5배, 연료 운반은 10배 이상 급등. 현지 화학업체들은 비용 부담 증가로 생산 감축 우려

- 라인강 수위 하락으로 인해 독일 GDP가 0.25~0.5%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가뭄으로 라인강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주요 강의 경제활동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도
- 프랑스는 전국적인 급수 제한을 실시, 이탈리아는 농업과 조개 양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가리아는 다뉴브강이 말라가자 긴급 준설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짐

출처 : 한경(22.8.11), 뉴시스(22.8.12) 등 언론보도 종합

● **【곡물, 우크라이나·글로벌】 우크라이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본격화, 매달 500만 톤 목표 달성 기대**

- 8.10일 우크라 곡물 수출을 위해 구성된 공동조정센터(JCC)의 프레더릭 케니 UN 임시 조정관은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려는 선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UN은 수출이 본격화되면 매달 500만 톤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7월 곡물과 지방 종자, 식물성 기름 수출이 6월 대비 2.7% 증가했다고 밝힘
- 7.22일 4자(UN,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 합의를 통해 흑해 수출길이 열리며 현재 선박 12척이 출항을 허가받았으며, 수송중인 곡물은 37만 톤 규모, 선박 4척은 우크라이나 항에 새로 들어올 예정
 - UN의 현재 최우선 목표는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유즈니 3개 항의 부두 공간을 추가 확보해 새로운 선박이 화물을 싣도록 하는 것이며, 현재 4자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 입항 선박들은 무기 밀반입 여부 검사 필수
- 한편, 창고 보관 기간이 길어져 곡물 품질이 떨어진 것이 또 다른 수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
 - 8.1일 2만 6천 톤의 옥수수를 구매하기로 했던 레바논에서 품질을 문제 삼으며 수입을 거부, 선박은 며칠 동안 튀르키예 해안에 묶여있었지만 10일 새로운 구매자를 구해 터키 남부 지중해변의 메르신 항구에 곡물을 하역할 예정

출처 : 연합뉴스(22.8.11), FT(22.8.13) 등 언론보도 종합

● **【리튬, 남미】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리튬 삼각지대'의 자원 보호주의에 글로벌 전기차 업계 속앓이**

- 최근 전기차 제조가 증가하며 배터리의 핵심 원료 리튬에 대한 수요는 '21년부터 약 750% 급증. 리튬의 주산지인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남미 공급에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기술적 이유에 따른 '리튬 보호주의'로 공급 차질이 지속되자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 걸친 남미의 광물 지대는 리튬 전 세계 매장량의 55%를 차지, 또한 암석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남미에서는 지하 소금물을 뽑아 햇볕에 말려 리튬을 얻기 때문에 생산비가 저렴
- '리튬 삼각지대'의 선두주자인 칠레는 최근 환경보호, 자원 안보를 이유로 리튬광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는 중. 최근 중국 전기차 대기업 비야디(BYD)가 칠레 정부와 계약한 리튬광산 개발이 원주민의 물 부족에 대한 항의로 이어지자 법원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철회시킴
-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정권은 원자재 채굴 민영화를 '적폐'라고 주장하며 리튬을 개발할 국영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볼리비아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끌던 '08년 이미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며 '광물강국'이 될 것임을 선언한 바 있으나 '13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리튬 공장들의 '21년 연간 생산량은 칠레의 1.5일 생산량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음
- 이러한 남미의 자원 국수주의에 업계 전문가들은 '남미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출처 : WSJ(22.8.10), 한경(22.8.11) 등 언론보도 종합



GVC 뉴스 더하기 ①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산업 공급망에 영향

※ 美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4,333억 달러 규모)이 상·하원에서 각각 8.7일, 12일 통과되고, 8.16일 바이든 美대통령이 최종 서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자

●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입법 동향

-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친 상원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기후변화 대응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했으며 **현지시간 8.7일 상원, 8.12일 하원 표결 통과, 8.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
- 이번 법안은 △미국의 사회안전망 혁신, △기후변화 대응, △아동 보호 및 의료비용 해결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니셔티브 요소들을 포함
 - 美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생계비용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현지 언론은 이번 법안이 **향후 10년간 4,330억 달러 투자 규모**로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는 평가

※ (참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추진 배경 및 전망

- 미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상원에 상정된 법안 통과는 60표가 필요하지만, 인플레 감축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조항 예외를 적용했으며 상원 예산위원장의 '예산조정권'을 활용하여 단순 과반 찬성 시 법안 통과가 가능해짐
-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 표 수가 동일할 경우,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이번 법안이 사실상 공화당 지지 없이 통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왔음
- 8.7일 상원 표결 시, 예상대로 민주당 대 공화당의 50대50 동수 표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51:50으로 법안 최종 통과
- 8.12일 하원 표결, 찬성 220 : 반대 207로 통과, 8.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

● 법안 주요내용

- 인플레이션 감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❶ 부유층과 기업 세금 징수, ❷ 조세법 집행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제안**
- 향후 10년간 총 7,390억 달러의 추가 자원 마련과 4,330억 달러 투자 집행을 통해 약 3,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감축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
 -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❶ 법인세 최저세율 15% 적용*으로 3,130억 달러, ❷ 메디케어(공공 건강보험)에 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협상 권한 부여로 2,880억 달러, ❸ 국세청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1,240억 달러를 확보하는 등 **총 7,390억 달러 추가 자원 마련 전망**
 - * 3개년 평균 조정 세전 이익이 10억 달러를 넘는 기업들에 최저 15%의 세금 부과
 - 확보된 재원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3,690억 달러,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연장에 640억 달러가 투자되어 총 **4,330억 달러 집행 예정**

● 법안 입법에 따른 주요 산업 공급망 영향

-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를 위한 투자 자원 3,690억 달러는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추진, 기후변화 대응 모색에 투자될 예정

- 법안에는 고효율 가전제품과 전기차를 구매하는 기업·가정에 보조금 지급, 신규 풍력발전기·태양광 패널 설치 시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 친환경 인센티브 대거 포함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관련 지원책	
미국산 전기차 구매	• IRA 법안 통과 후 미국산 전기차 구매 시, 연수입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은 7,500달러, 중고차의 경우 연수입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4,000달러의 세액 공제
에너지 발전	•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풍력·태양광에 300억 달러 지원

- 아울러, 석탄 생산 지역을 지역구로 둔 조 맨친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석유·가스 생산 업체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토지 대여 등 석유와 가스 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됨

● 향후 전망

- 동 법안은 중국의 배터리 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업계의 중론으로, 주요 권역·국가의 경제 안보를 위한 산업 보호주의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

- 현재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핵심 광물 등 북미 공급망 조건이 강화되어 전기차 인센티브 제공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에 한정

- 현대차·기아는 현재 전용 전기차 모두 국내에서 생산 중으로 현지 전기차 생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중요할 전망

- 또한,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특정 광물이 해외 우려 국가(Foreign Entity Concern)에서 추출 및 제조되거나 재활용되는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터리 구성요소 및 핵심 광물의 최대 80%까지 미국산 기준을 적용할 전망으로,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산 광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고려시 전기차 제조업계에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

- '23년 이후 중국산 부품을 탑재한 차량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23년까지 배터리 구성 요소의 50%, '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산으로 써야 하며, 핵심 광물도 '23년까지 미국산 비율 4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상향되어 '27년부터는 80%의 미국산 광물을 사용해야 할 전망

-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 중인 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수혜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우리나라와 EU는 동 법안이 한미 FTA 및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법안 요건 완화를 요청한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 : 8.11일 업계 간담회 후 동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美측에 전달,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 완화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한미 FTA에는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 사용 조건의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어, 한국 정부는 국산이나 수입산 전기차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 중. 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방향의 법안 개정을 미국 하원에 요청

-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집행위원회 대변인 : 8.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WTO 규범과도 상충된다'며 '미국이 법안에서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GVC 뉴스 더하기 ② : 日 경제안전보장법, 공급망 강화 등 기본지침 발표

※ 일본 정부가 7.27일 「경제안전보장법」의 4가지 분야 중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민관협력’ 기본지침을 공개한 바, 공급망 강화 관련 기본지침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자

● 일본 「경제안전보장법」 개요 및 추진 동향

- 지난 5.11일 통과한 일본 「경제안전보장법」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구조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① 공급망 강화, ② 기간인프라 안전성 확보, ③ 첨단기술 민관협력, ④ 특허 비공개 분야로 구성 (‘인사이트’ 8호, 12호 참조)
- 7.27일 발표된 ‘공급망 강화’ 및 ‘첨단기술 민관협력’ 기본지침은 8.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말 국무회의의 결정을 추진하고, '23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기본지침’ 주요 내용

- (개요) 중요물자의 정확한 공급망을 파악하기 위해 업계 조사 결과와 공청회 등을 통해 조사 대상 범위와 내용을 압축하고 **공급망 조사 실시** → 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요건 충족 시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고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

‘특정 중요물자’ 지정을 위한 4가지 요건	
중요성	• 국민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중요한 것
외부의존성	•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할 우려가 있는 것
공급망 단절	• 외부 행위에 의한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
안정공급	• 안정공급 확보 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 (대응방침) 특정 중요물자의 주무 장관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물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중요물자 지정 요건, 안정적 공급 확보 목표, 자금조달 등 유효한 지원정책***을 포함한 대응방침을 선별해 공표
 - * 지원방안에는 △자금 및 금융지원, △생산기반 정비, △공급원 다양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개발, △공급망 강화, △물자사용 합리화, △대체물자 개발, △기타 외부의존도 감축 대응 등 포함
- (자금지원) 대규모·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저리·장기자금 용자와 중소기업신용보험법 특례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
- (특별대책) 민간사업자의 대응만으로는 안정적 공급 확보가 어려운 요건에 해당될 경우 **‘특별대책 필요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 및 비축 등 필요한 대응 시행

‘특별대책 필요 특정 중요물자’ 지정을 위한 3가지 요건	
• 민간사업자가 안정공급 대응을 시행하지 않아,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	
• 안정공급이 어려운 특정 중요물자 중 비축 등 정부의 대응조치를 통한 안정공급 확보가 필요한 것	
•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대응조치 시행이 경제성 측면에서 곤란한 것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산업계의 경제활동 제약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법」에 경제안보를 위한 규제강화의 필요성 명기, 공급망 강화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도 동 법안 공급망 관련 기본지침 수립 방향 참고 가능
 - 법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 부담 증가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일본기업들은 의견공모 과정에서 특정 중요물자 관련 사업자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 간소화·간편화 요청 등 제기 전망
 - 또한, 일본기업들은 공급망 계획 공유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시행단계에서 민감정보 유출 관련 법적 보호장치를 포함한 정보유출 방지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일본은 특정 중요물자 공급망, 중요기술 뿐 아니라 기간인프라, 특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제안전보장법」을 축으로 **안보를 강화할 계획**.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일본과 분업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GVC 뉴스 더하기 ③ : 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발표

※ 윤석열 정부는 8.11(목)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확산을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TF회'를 개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함
- 보도자료 전문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확인 가능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 (개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 (목적) ①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②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 (기간)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 6개월 이후 성과점검 실시(성과점검 실시시점과 무관하게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
- (방식)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원칙〉

①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함

-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2주간(8.12 ~ 26) 참여기업 모집
- 8월 말까지 30개社 내외를 선정할 예정
-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계획

②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원함

- 올해 하반기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 '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지능형 공장(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에 대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 추진

③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함

-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 활동 전개
-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 추진 협약 지속 추진
-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 지침서 배포 예정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목적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 형성
필요성	•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하여 정해둘 필요가 있음 • 현재로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역할	•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미리 협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하여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
기재사항	•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

GVC 기초상식 : 방위산업과 공급망

※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등 각종 군수품에 포함되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핵심광물.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가치사슬과 공급망 관련 이슈를 알아보자

〈방위산업과 핵심광물 시리즈〉

23호 : 방위산업과 핵심광물

24호 : 방위산업과 공급망

-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가치사슬은 간략하게 원광단계(채굴, 정·제련 등), 소재·부품 가공단계(합금, 반제품 제조 등), 최종 제품 생산단계(미사일, 전투기 등)로 나뉘어짐
 - 방산제품에서 광물은 대부분 타 금속과의 합금 및 가공을 통한 반제품 형태로 사용되므로 원광에 대한 확보 뿐 아니라 가공기술 및 관련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이슈
 - 방위산업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란 단순히 광물 확보의 의미를 넘어 부품/소재 제조를 위한 가공 기술 확보 및 소재부품 생산까지의 복잡한 가치사슬을 모니터링하고 공급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



- 방위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합금, 복합재료의 제조에는 수십종의 핵심광물이 사용되나 미국/유럽 등 주 소비국은 대부분의 광물을 수입에 의존
 - 2016년 미국 상무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66%(대부분 국방부 공급업체로 파악)가 희토류 관련 재료를 수입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수입처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같은 해 유럽 집행위(EC)는 유럽 방산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39종의 광물 중 절반 이상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 특히, 미사일 방향제어 및 통제 시스템, 레이저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경우 원광 생산량의 약 60%가 중국에서 생산되며, 중국이 가공 및 제조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對中 의존도가 매우 높음
 - 美 방위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양의 5% 수준이나, 희토류로 만들어지는 네오디뮴(NdFeB) 자석은 현존하는 자석 중 자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각종 미사일 시스템, 미사일 유도 및 방향제어 시스템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됨
- 세계 각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국가의 첨단 및 방위산업 발전과 유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유럽/미국은 일차적으로는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역내 채굴 가능성 확보, 생산 확대 노력, 수입처 다변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대체재 개발을 위한 R&D 프로그램, 광물의 가공, 부품제조 등 다운스트림 분야 강화, 해당 분야 관계자들간 원자재 관련 지식 공유활동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특히, 미국은 희토류의 공급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차례 희토류 공급망 문제 진단 및 공급망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
 - 2011년 美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 취약점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른 국방부 보고서가 2012년 3월 발표, 이후 최근 바이든의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E.O. 14017)에 따른 공급망 검토까지 지속적으로 희토류 수급 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GVC 돋보기 : 식량보호주의와 수출제한조치

※ 집 앞 마트에서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과자와 필리핀산 바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우리.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식량 공급망'이 위협에 처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안전한지 살펴보자.

〈식량 시리즈〉

19호: 식량 안보와 식량보호주의
20호: 국제 식량 공급망
21호: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구조

- **식량 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사람이 물리적·경제적으로 필요한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
 - 좁은 의미의 식량안보는 전쟁,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재난 상황에서도 식량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

〈식량안보의 4요소〉

가용성(availability)	국내 생산 또는 수입을 통해 충분한 양의 식량이 공급되는 상태
접근성(access)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 환경에서 양질의 식품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태
활용성(utility)	양질의 식사, 깨끗한 물, 위생 상태,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
안정성(stability)	위기 상황 여부와 무관하게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

* 출처 : FAO

- **식량은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급격한 성장 이후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로 부각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물자로서의 활용이 빈번해짐**
 - 1990~2000년대 GVC의 성장에 따라 식량의 공급과 가공이 국가별로 분리된 구조 형성
(‘인사이트’ 7호 ‘GVC의 성장과 재편’ 참고)
 - △2007~2008년 식량 가격 위기, △2020년 코로나19,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식량공급 변동이 국제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식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식량 위기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각국의 식량보호주의 확산 움직임**
 - 식량보호주의란 국가의 식량안보 보장을 위해 수출제한조치, 보조금 지급 등을 활용하여 식량 수출을 통제하거나 비축을 확대하는 것
 - 식량의 무기화가 계속되고, 자원민족주의로 이어질 경우 식량 부국과 빈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자원민족주의: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자원에 대해 이를 소유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 **수출제한은 식량보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치**
 - 식량 비축은 공급량과 가격 변동에 따라 통제가 쉽지 않지만, 수출제한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
 - 수출제한조치에는 ① 수출금지, ② 허가제(쿼터), ③ 관세 조정 등의 방식이 있음

종류	설명	예시
수출금지	특정 품목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조치	인도: 밀(소맥)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
허가제	일정 기준 충족 시에만 수출을 허용하는 방식 ▪ 쿼터: 특정 상품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방식	인도네시아: 팜유 공급자가 계획된 내수 공급량을 국내 시장에 제공한 경우에만 수출 가능
관세 조정	일정 관세 영역 밖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수출세’ 등의 세율을 조정하여 교역량을 조정하는 방식	아르헨티나: 대두유와 밀가루에 대한 수출 관세를 31%에서 33%로 상향 조정



GVC 전문가 :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원자재·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공급망 충격은 국내 생산·수출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한국은행의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해 보자

● 우리 경제의 수입구조 현황 및 특징

(1) 성질별 수입구조 - 원자재(원유·가스·석유제품, 화공품·철강 등), 자본재(전자기기·기계 등), 소비재(자동차 등)로 편제

- 우리나라는 천연자원 부족, 환경 규제, 국내 생산의 채산성 및 기술 문제 등으로 **생산 및 투자에 필요한 원자재, 자본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으로 조달하며 그 비중도 지속 확대 중**
- 수입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절반 가량이 **중간재로 투입되며, 컴퓨터·전자,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중간재 수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제조업 중간투입재 중 수입재 비중 (%) 〉

		'10년	'15년	'19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21.7〉	43.5	49.8	53.4
기계 및 장비	〈8.2〉	17.9	21.7	25.1
음식료품	〈6.6〉	19.6	18.3	14.6
비금속광물	〈2.4〉	35.7	18.8	19.4

* 〈 〉내는 제조업내 부가가치 비중('19년)
(자료: 산업연관표)

- (원자재) 전체 수입의 약 50% 차지, 에너지·비철금속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여 국제 에너지 가격에 따라 수입액 크게 등락. 팬데믹 이후 공급 불안정에 따른 단가 상승, 비축 수요 확대 등으로 비에너지 부문 수입액도 크게 확대
- (자본재) 반도체·반도체제조장비 수입 비중이 높아 IT경기 및 관련 수출·설비투자 양상이 전체 수입 규모를 좌우. 기타 기계류의 경우 미국·독일·일본 등 기술 우위국, 저가 범용제품은 중국에 주로 의존
- (소비재) 내구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내수 회복에 힘입어 비내구재 수입도 크게 증가

(2) 국가별 수입구조

- (중국) 제조기술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전략적인 광물자원 확보 정책이 더해지면서 **원자재와 반도체·PC·화공품 등 대부분 품목에서 對중국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 특히 중·고위 및 고위 기술 품목 비중 상승**
 -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다수 품목이 수출특화(수출 > 수입) → 수입특화(수출 < 수입)로 전환, '10년 대비 무역수지 하락
- (미국) '18년 이후 원유·천연가스 수입이 크게 늘며 **자본재(기계류·정밀기기 등) → 원자재(에너지 등) 중심으로 수입구조 전환**
 - 수출이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해 수출특화 품목(반도체, 컴퓨터, 배터리 등 전기·전자 품목)이 크게 증가
- (일본) 기존 주요 수입품목이었던 **화공품·철강 등의 수입 수요가 중국으로 이전, 수입 비중 크게 축소**
 -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축소되어 수입 특화 상태 지속 (광학기기, 반도체 제조장비 등이 대표적 수입특화 품목)

● 우리 경제의 수입공급망 취약품목 특성

※ 전체 수입품목 5,381개의 39.8%인 2,144개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 (BACI교역품목별데이터 '20년 기준)

- 광산품·섬유·사료 등 원자재 품목의 취약성이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한 반면, 기계·전자·운송기기 등 자본재는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주요 취약품목의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글로벌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반도체 및 관련기기, 의료 관련 화공품 등은 對미국·일본 수입비중 高

※ EU집행위 역내공급망 취약성 점검 방법론 기반 분석 : 품목별 수입집중도[허쉬만-허핀달 지수(HHI) - 해당 수입품목의 국내수요 대비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국내 생산의 수입대체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적용

(1) 원자재 취약

- 광산물·섬유·사료 등 원자재 품목의 취약성이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 특히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석유류·광물 등은 소수의 수출국이 글로벌 교역을 독점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광물류는 매장량이 풍부한 호주·남아공 등, 화공품은 지리적 근접성, 기술 격차 등으로 중국·일본·미국 등에서 주로 수입
- 이 중 제조업 생산 시 주요 원재료로 투입되는 **광산품류**(철광석 등 금속·비금속 광물, 프로판·무연탄 등 에너지류)와 **석유류**(크실렌, 톨루엔 등)에서 **공급망 취약품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농·축산물류, 섬유류 등도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글로벌 수준 대비 크게 취약
- 화공품은 글로벌 대비 한국이 크게 취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예외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산업에 투입되는 원자재**(웨이퍼, 리튬, 코발트, 촉매 등) 수입 공급망 취약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

(2) 자본재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위험 잠재

- 한국은 기계·전자·운송기기 등 주요 자본재에서 높은 비교우위 보유, 글로벌 수준 대비 취약성이 낮음
 -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자본재는 소수 핵심 교역국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해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에서는 취약성이 높은 반면, 한국은 해당 품목들의 글로벌 수출경쟁력이 커 취약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 다만, **반도체 검사·제조용 장비 등 반도체 관련 장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설비투자 목적의 수입수요가 매우 크나, 수출국은 기술력을 갖춘 소수에 불과해 **한국특화 취약품목**으로 분류
 - 글로벌 특화 취약품목에는 소수 국가 수출 독점 품목들이 다수 있어, 향후 우리경제의 취약품목으로 전환될 가능성 잠재

(3) 중국에 대한 높은 수입집중도

- 주요 취약품목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29.1%로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 중국내 공급망 악화 시 우리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 (글로벌 취약품목의 전 세계의 주요국별 수입 비중) 중국 20.5%, 독일 9.2%, 미국 7.9% 등을 기록
- 전 품목에 걸쳐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구리·알루미늄·아연 등 주요 광물의 對中 수입 비중은 평균 67%로** 이와 관련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도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다만, 우리 경제의 높은 對中 의존도는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 전반에 중국의 영향력이 크고* 지리적 근접성 등에 따른 경비 및 물류상의 이점도 있는 등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
 - 중국은 한국 전체 수입품목 5,381개 중 2,381개인 44.2%의 1위 핵심교역국, 2~3위까지 포함 시 3,548개 65.9%로 확대

● 종합 평가

-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는 중국·미국·독일 등 핵심교역국의 영향력이 높고 국가간 VC 군집화로 전자·화공품·비금속·기계 등 주요중간재·자본재 중심으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중국이 지난 10년간 핵심교역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한국뿐만 아닌 글로벌 교역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 공급망 충격 상시화에 대비해 주요 원자재·자본재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특히, 공급망 취약성의 원천이 글로벌 네트워크보다는 우리 경제에 국한된 경우 수입처 다변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음
 - 단기적으로 취약품목의 재고 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시 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원자재의 국외 자원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주요 권역·국가가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에 참여하는 것 역시 안정적인 수입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



더 찾아보기 : 한국 방위산업이 앞으로 가야할 길

※ 최근 한국 무기체계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방위산업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등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방위산업진흥회의 의견을 묻고 요약함

● 한국 방위산업이 쓴 새로운 역사

- 과거 50년 전, 해외 방산 강국으로부터 중고 무기체계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기술도면과 부품을 수입해 조립·생산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첨단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2021년 K9 자주포, 천궁-II 등의 수출로 방산 수출이 70억 달러(약 8조 3,000억 원)를 넘어섬
 - 지난 7.27일, 폴란드 국방부와 △ K2 전차 980대(18조 원), △ FA-50 경공격기 48대(3조 8,000억 원), △ K9 자주포 670문(4조 원) 납품 등에 대한 총 사업규모 26조 원의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맺음
-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 첫 시험비행**과 **고체추진 발사체 시험발사** 등에 성공하고, 최신 구축함, 잠수함, 장갑차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들이 **유럽, 호주, 동남아, 중동 등에서 러브콜**을 받는 중

●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언

① 정부·군·유관기관·업계 간 수출추진 협조체계 구축

- 우리나라는 안보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① **무기 신속 생산능력**과 ② **가성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주요국 긴급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출추진 협조체계**가 구축되면 수주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음
- 최근 원전산업 해외 진출의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원전 수출전략 추진단'을 설치한 것처럼 방위산업에도 '**민·관·연 협력 방산수출전략 추진단**'을 마련하여 세일즈외교 전개 등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 방산수출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우방국 중심의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학·연 중심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B2B 방산협력 창구 신설·확대** 등을 통해 공동 협력사업 발굴 기회를 마련할 필요

② 방위산업이 실질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 대폭 확충

- 기술개발 투자를 통한 방위산업의 국산화 달성 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발생
 - 유지부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면 유통경로가 단일화되어 불합리한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30여년에 걸쳐 장기간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운영유지 비용은 구매비용의 2.5배에 달함
- 산·학·연을 중심으로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핵심부품 국산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및 성능시험 지원,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추진되도록 장려하여, AI, 무인운용체, 디지털 네트워크 등이 복합 활용된 **무기통합운용 솔루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산 확보** 등 지원 필요
- **상대국 기술수준을 고려*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자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우리 국방 기술의 단점을 글로벌 차원에서 보완하여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제고할 필요
 - * 기술 수준이 낮은 국가는 우리가 선도하며 상대방에게 기술·경험·기법 등을 전수해주는 '지원형',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는 선진기술·경험·정보·노하우를 습득하여 우리의 부족역량을 채우는데 목적을 둔 '학습형' 협력 추진
 - ** 참가국의 수에 비례하여 시장(수요)은 키우고 위험과 이익은 분산·공유하는 일종의 RSP사업(Risk Sharing Program)

③ 국방 R&D 패러다임을 '소요추격형' → '소요선도형'으로 과감하게 전환

- 국방 R&D 패러다임을 '소요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전장을 지배할 **혁신적·도전적 기술과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할 필요
 -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기획·개발하고 있는 미래도전기술은 우주, 사이버, 국방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센서·전자전, Chem-Bio, 국방소재·에너지, 지향성에너지, 무인·자율, 극초음속 등 11개 국방전략 기술분야
- 현재 국방연구개발비의 28%(21) 수준인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 예산을 **10%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
 - * 현재 정책당국은 혁신·도전적인 기술의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신개념 무기체계의 소요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 추진 중



GVC 소식통 ① : 라-우 사태 ·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 금융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중견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 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상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 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 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 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⑦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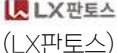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모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삼성 SDS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안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벌크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기업 벌크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더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table><tr><th>출항지</th><th>도착지</th></tr><tr><td>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td><td>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내륙운임: 수출기업 부담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포스코수출물류합적플랫폼 (www.steel-n.com) 사업안내 바로가기 ① 플랫폼 회원가입 ② 가입승인(포스코) ③ 합적 신청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 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더 <table><tr><th>출항지</th><th>도착지</th></tr><tr><td>광양항, 마산항, 평택항</td><td>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항공운송]																						
 (대한항공)	항공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포워더 신청불가)가능 품목: 일반 화물 (특수화물 불가) <table><tr><th>노선</th><th>출항일</th><th>예약 마감</th><th>서류/화물 (입고)마감</th></tr><tr><td rowspan="2">인천 → 로스엔젤레스</td><td>수요일</td><td>월요일 12:00</td><td>화요일 12:00 이전</td></tr><tr><td>일요일</td><td>목요일 12:00</td><td>금요일 12:00 이전</td></tr></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엔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엔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컨테이너 화물 수출 회원사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규) 8~9월 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지원 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 신청불가)가능 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TCR 노선은 40피트 컨테이너만 가능 <table><tr><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th>내륙운송</th></tr><tr><th>노선</th><th>출발지</th><th>도착지</th><th>최종도착지</th></tr><tr><td>TCR</td><td>인천/평택</td><td>폴란드 말라세비치</td><td rowspan="2">유럽 전역</td></tr><tr><td>TSR</td><td>부산</td><td>폴란드 말라세비치</td></tr><tr><td></td><td></td><td>러시아 모스크바</td><td>모스크바 인근</td></tr></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인근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인근																			
[물류 보관]																						
 (칼트로지스)	컨테이너 화물 물류센터 보관 희망 기업	[부산신항 물류센터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table><tr><th></th><th>서비스 내용</th><th>여부</th><th>비고</th></tr><tr><td>1</td><td>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td><td>불포함</td><td rowspan="2">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td></tr><tr><td>2</td><td>물류센터 상하차</td><td rowspan="3">포함</td><td rowspan="3">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td></tr><tr><td>3</td><td>물류센터 보관</td></tr><tr><td>4</td><td>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 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해상화물) ☎ 02-6000-7617/5754 / logistics01@kita.or.kr
 (항공화물) ☎ 02-6000-5754 / hjo117@kita.net



GVC 소식통 ③ :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포럼 개최 소식

● 수소에너지 전시회 연계 미래에너지 협력 플라자

- 국내 유망 수소 비즈니스 추진 기업들의 중국 등 해외 현지 진출을 위한 전시상담회 및 포럼
 - 일시/장소 : (전시회) 9월 15일(목)~17일(토) / 상하이 자동차 전시컨벤션 센터
(포럼) 9월 21일(수) / 옌청시 국제엑스포 센터
 - 신청기한 : 8월 24일(수) 限
 - 참가신청 : [수소에너지 전시회 연계 미래에너지 협력 플라자\(클릭\)](#)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첨부)참가신청서 작성하여 시스템 상 신청 후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도 송부
※ 기업 카탈로그 및 제품설명서(국문, 중문, 또는 영문), 기업보유 특허 등 우수성 입증자료 함께 제출 요망
 - 참고사항 : 전시 참가는 무료, 샘플 발송 가능 기업 또는 중국 판매에 필요한 자격요건 충족 시 우대
 - 문의처 : KOTRA 난징무역관 이민호 과장 ☎ (+86)-25-8328-8991(22) / minoh@kotra.or.kr

● K-스마트팜 베트남 수출 지원사업

-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베트남 유망산업인 스마트팜 분야 우리기업 현지 진출 지원 위한 세미나 및 상담회
 - 일시/장소 : 10월 31일(월) / 베트남 호치민시 뉴월드 호텔
 - 참가규모 : (세미나) 한·베 유관기관 관계자 및 기업인 50여 명
(상담회) 국내기업 15개 사, 바이어 45개 사
 - 신청기한 : 8월 24일(수) 限
 - 참가신청 : [K-스마트팜 베트남 수출 지원사업\(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첨부)참가신청서 작성하고 [제품 카탈로그](#)와 함께 첨부하여 업로드
 - 참고사항 : 공항-호텔 이동 차량,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한·베 통역 지원
※ 행사 당일 중식은 제공하나 그 외 출장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 정지영 대리 ☎ (+84)-28-3822-3944(133) / jy92@kotra.or.kr

● 한일 차세대 모빌리티 파트너링 쇼케이스

- 도요타 그룹 부품사 본사가 소재한 카리야 시에서 미래차, 그린 모빌리티 분야 국내기업 전시상담회 개최, 일본 벤더와 매칭 및 제조 혁신 스타트업 경우, 일본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발굴을 위한 피칭 지원
 - 일시/장소 : 11월 22일(화)~23일(수) / 카리야 산업진흥센터 (일본 아이치현 소재)
 - 신청기한 : 8월 26일(금) 限 ※ 신청기한 연장
 - 참가신청 : [한일 차세대 모빌리티 파트너링 쇼케이스\(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첨부)참가신청서 작성하고 [카탈로그 및 동영상 등 회사 정보 파일](#) 첨부하여 업로드
 - 참고사항 : 일본어 자료 보유 기업 우대, 전시 참가 무료, 운송·통관 및 출장비 등 제반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문의처 : KOTRA 나고야무역관 이상진 과장 ☎ (+81)-52-561-3957 / lsjplate@kotra.or.jp
KOTRA 소재부품장비팀 곽지웅 사원 ☎ 02-3460-7647 / kju03@kotra.or.kr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한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바이오협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전자산업협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언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8. 17. 수)

[환율]

	'20.12.31	'21.12.31	'22.7.31	'22.8.11	'22.8.12	'22.8.16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99.10	1,303.00	1,302.40	1,308.10	+0.44%	+10.04%
선물환(NDF, 1월물)	1,186.30	1,190.00	1,299.00	1,302.80	1,301.70	1,249.20	-4.03%	+4.97%
₩/CNY	166.04	186.51	193.35	193.40	193.28	192.62	-0.34%	+3.28%
₩/¥100	1,051.19	1,032.48	979.94	979.99	976.75	981.10	+0.45%	-4.98%
Y/U\$	103.34	115.14	132.57	132.96	133.34	133.33	-0.01%	+15.80%
U\$/EUR	1.2279	1.1318	1.0247	1.0296	1.0313	1.0164	-1.44%	-10.20%
CNY/U\$	6.5305	6.3681	6.7419	6.7377	6.7382	6.7909	+0.78%	+6.64%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8.15 (전일)	'22.8.16			
						전일(8.15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94.6	92.12	▼2.5 -2.6%	▲42.1 +84.1%	▲15.0 +19.5%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04.40	104.05	▼0.4 -0.3%	▲16.8 +19.2%	▼16.7 -13.8%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865.50	7,992.00	▲126.5 +1.6%	▲236.5 +3.0%	▼1,700.0 -17.5%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389.50	2,442.00	▲52.5 +2.2%	▲490.5 +25.1%	▼364.0 -13.0%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1,850.00	22,500.00	▲650.0 +3.0%	▲6,593.0 +41.4%	▲1,575.0 +7.5%

[반도체]

	'20	'21	'22.5	'22.6	'22.7	8.11	8.12	8.15	8월(~15)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42	3.37	3.11	2.82	2.81	2.79	2.87
(YoY)	-21.9%	+8.0%	-23.6%	-25.4%	-31.6%	-33.8%	-33.7%	-34.1%	-31.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25	8.01	6.83	6.56	6.56	6.58	6.56
(YoY)	+7.0%	+32.8%	+33.7%	+23.0%	+1.4%	-4.3%	-4.4%	-4.2%	-4.2%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7.22	'22.7.29	'22.8.5	'22.8.12	전주(8.5)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3996.77	3887.85	3739.72	3562.67	-4.7%	-29.4%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7.29	'22.8.10	'22.8.11	'22.8.12	'22.8.15	전일(8.12)비	'21년말비
BDI	2,217	1895	1592	1556	1477	1404	-4.9%	-36.7%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mGL3Obe>

협력기관

